

하나님 사랑

2026
Vol. 279

이웃사랑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디자인
두인

표지그림
안혜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YouTube



Instagram



홈페이지

04

CENTER

정신건강의학과
긴 터널에서 함께하며
뇌와 마음의 병을 치유하다



08

MEDICINE ①

정신건강의학과 최말례 과장
방치하면 커지는
주산기 우울증

10

MEDICINE ②

정신건강의학과 박경환 과장
아픈 사회의 민낯
자살

12

TEAM

간호국 본부
사람을 살리는 손길
마음을 채우는 간호

16

선교국 소식

20

국내기독병원 소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동산의료선교복지회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숨 쉬는 선교를 이어가다



22

ALUMNI

김태형정신건강의학과 김태형 원장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나아간

24

MISSION COLUMN

재활의학과 유기배 과장
믿음과 헌신의 여정을 기리며



26

Dr. Shaw가 남기는 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늘 평온하시길 빌겠습니다

27

우리의 선언

28

PMC ON

29

언론 속 PMC
PMC NEWS

36

DONATION
후원 안내

38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긴 터널에서 함께하며 뇌와 마음의 병을 치유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최유섭 전공의

한명일 과장

조환호 전공의

이정현 전공의

최말레 과장

박경환 과장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1980년, 김임 초대 과장의 부임으로 첫발을 디뎠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 수련생, 정신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진료, 교육, 연구, 지역사회 공공사업을 활기차게 수행하고 있다.

정신건강? 뇌와 마음의 복잡계

정신은 뇌와 마음이 연결된 복잡한 체계이다. 정신계의 대표 질환인 조현병과 우울증, 치매는 기본적으로 뇌 질환이다. 전두엽과 변연계의 이상,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불균형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우리 정신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래 집단, 학교, 직장, 군대 그리고 심지어 가족 내에서의 역할 갈등이나 부적응은 고립감, 따돌림, 우울, 자해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한다.

예수병원은 전주 중심에 자리하면서 꾸준한 진료, 교육, 연구, 학회 활동으로 최신 경향을 선도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마음의 감기’ 상담을 위해 노크할 수 있다. 특히 입원 병동은 어디서도 찾기 힘든 ‘편안한 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입원 환자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호자가 곁을 지키면서 위안을 나누기도 한다.

치매 예방과 치료의 허브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건강 분야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치매 치료는 각별하다. 예수병원은 202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를 수탁 운영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가 센터를 책임지고 있다. 센터는 전북도 치매 관리의 ‘컨트를 타워’로서 치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추 기관이다. 센터는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하

고 자원 연계, 인식 개선, 교육, 돌봄, 예방 수칙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에 주력한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는 뇌 MRI와 MRA, 아밀로이드 PET 등의 최신 뇌영상검사와 신경인지검사(SNSB) 등으로 치매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전통적 약물치료와 함께 초기 알츠하이머치매의 항체 치료(Monoclonal Antibody Therapy)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진단과 치료를 고도화시키고 있다.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치매 환자의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매의 예방과 교육 활동을 포괄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평안을 찾도록

현대 의학이 수많은 난치 질환을 정복해 왔지만, 정신의학은 과학적 근거로만 그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병원은 사람의 마음에 더 집중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은 월요일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주어진 소명을 생각하고 전인적 치료를 되뇌인다.

‘조현병’을 앓더라도 환자마다 환청의 내용과 반응은 제각각이다. 작은 우주만큼이나 광활한 한 사람의 정신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함께 호흡하고 명상하는 것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다. 저마다 처해있는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전인적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이 불량하면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서 외로이 걷는 것과 같다.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 곁을 지켜왔다. 마음이 아픈 것은 의지가 박약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는 것과 같다. 예수병원은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 너머로 환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정확한 약물 처방에 따른 ‘증상 호전’ 너머에 있는 잃어버린 전인적 자아의 회복에 집중한다. 예수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최신 뇌과학 기반의 진료 시스템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삶과 행복이 존중받는 개방적인 치유 환경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한명일 주임과장



방치하면 커지는 주산기 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 최말레 과장

주산기 우울증 진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통 우울한 기분, 의욕과 흥미·집중력 저하, 수면 곤란, 자살 시도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지거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합니다. 임신·출산을 경험한 10~15% 여성이 주산기 우울증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 우울증은 태아 성장을 더디게 하고,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 음주, 자살 시도, 영양분 섭취 불량 등이 발생한다면 태아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은 아이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방해해 아이가 자라면서 정서 문제와 행동 장애를 겪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내 주변에 주산기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선부른 조언보다 공감과 이해, 배려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임신 중에는 약물치료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울증 약물치료가 가능한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임신부 금기 약물이 아닙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면 약물치료도 가능합니다. 임신 1기(첫 3개월)는 태아 장기형성·발달하는 시기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울증 증상이 너무 심해 알코올 섭취, 자살 시도 등의 위험이 있고,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원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임신 중반기(4~7개월)에는 복용하는 약물 용량을 늘리는 식으로 더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산 후 우울증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면, 모유 수유를 중단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산모가 복용한 약물 총량의 1~2% 정도만 모유를 통해 전달되므로, 산모 정신건강에 필요하다면 약물치료도 가능합니다. 수유 시 약물 사용 위험도를 L1(가장 안전)~L5(투약 금지)로 세분화한 할(Hale) 등급 분류에 따르면, SSRI 계열 항우울제는 L2(상당히 안전)에 해당합니다. 모유로 넘어가는 양이 적고, 장기적으로 부작용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알려진 파록세틴이나 세르트랄린 같은 약물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난임과 임신, 출산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전북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난임 부부, 유산이나 사산의 아픔을 경험한 부부, 임신부와 양육 중인 부모, 그리고 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인 회복과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상담과 약물치료 같은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그분들 곁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회복을 도와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담과 우울증 검사, 심리 회복을 담당합니다. 고위험 임신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픈 사회의 민낯 자살

정신건강의학과 박경환 과장

최근 자살 관련 뉴스가 자주 들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2025년 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23년 27.3명에서 1.8명(약 6.6%) 증가했습니다. 2025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 자살률(약 10.7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40대에서도 암을 앞질러 사망원인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깊이 아픈 상태인지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자살에 어떻게 접근하나요?

가장 시급하며, 무겁고, 중요한 정신과적 응급 상황으로 다룹니다. 개인 의지나 선택의 문제만을 넘어,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요인이 서로 얽혀 나타나는 정신의학적 위기로 봅니다. 과거 자살 시도나 정신질환과 같은 개인적 요인, 무망감과 심리적 요인,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위기 같은 사회적 요인이 급성 스트레스 사건과 겹칠 때,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자살 시도자의 상당수는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장애, 정신증적 질환, 알코올 및 물질 사용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아 약물·정신치료가 필수입니다. 안전 계획 수립, 가족 개입, 지역사회 연계까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다학제 협력도 진행합니다.

예수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운영을 담당합니다. 사례 관리자 일곱 명이 근무 중이며, 응급의학과 박홍인 과장님께서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부센터장으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내원하면, 우선 필요한 의학적 처치 후 사례 관리자가 직접 환자를 만나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환자가 동의할 경우, 대면이나 전화 면담을 통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치료비, 그리고 기타 진료과의 치료비를 응급실 내원일 기준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수병원 응급실을 거쳐 간 400여 명의 자살 시도자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도왔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정신과 의사로서 어려운 환자분들을 만날 때면 되뇌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입니다. 지혜의 기도로 알려진 이 솔로몬의 기도는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לֵב שׁוֹמֵא),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살 시도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들어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살 시도자들은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손길 마음을 채우는 간호

간호국 본부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이선영 책임간호사

이자영 특수부서외래과장

이성희 병동과장

한순희 간호국장

안윤정 교육과장

김춘애 책임간호사

가장 넓은 곳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다양한 현장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병원 간호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러하지 않을까. 한순희 간호국장을 필두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이러한 간호국을 만들고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먼저 한순희 간호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간호국 비전과 전략 수립부터 예수병원 미션과 가치가 간호 현장 전반에 스며들도록 이끈다. 이성희 병동과장은 입원 환자의 일상을 돌보는 병동을 책임지며, 환자 중심 간호가 구현되도록 관리한다. 간호사 간 협력과 원활한 소통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받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는 간호 문화를 만들고 있다. 안윤정 교육과장은 교육 체계와 연계한 행정 지원으로 간호사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활센터를 책임지고 있다. 이자영 특수부서외래과장은 중환자실을 비롯해 수술실, 응급실, 외래 등 고도의 간호 역량이 필요한 현장에서 표준화된 간호와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신뢰받는 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김춘애 교육 책임간호사는 신규·경력 간호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며 전문적 성장과 지속적 역량 향상을 돕는다. 이는 근거 기반 간호와 함께 현장에 최신 지식을 적용하는 기반이 된다. 이선영 행정 책임간호사는 간호국 행정과 실무 전반을 맡아 현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쓴다.

예수병원 간호국 본부는 병원의 가장 넓은 접점에서 환자들을 만난다.

저마다 각기 다른 현장을 누비지만,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표준화된 시스템, 전인적 치유, 유기적 협력 전문성을 원칙으로 하나 된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인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12:12)라는 말씀처럼 간호국 안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수많은 지체가 존재하지만, 세 가지 전문성을 원칙으로 삼아 하나 된 공동체를 이뤄간다. 첫째, 표준화된 시스템의 전문성이다. 간호국은 병원의 혈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 곳곳에 퍼져 있지만, 결국 하나의 심장처럼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래와 수술실, 병동, 중환자실 등 근무 환경은 다르지만, ‘환자 안전’이라는 목표 아래 표준화된 시스템을 지키며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어디서든 환자가 같은 수준의 고품질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준수하고 교육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은 전인적 치유의 전문성. 간호국은 질병 관리를 넘어 환자 전 생애를 살피는 전인적 간호를 지향한다. 예수병원 설립 정신인 ‘이웃사랑’과 ‘예수를 닮은 사랑과 능력으로 영육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환자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마지막은 유기적 협력의 전문성이다. 병원 내 모든 부서를 잇는 든든한 허브로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철저한 책임감을 잊지 않는다. 이 같은 소통은 복잡한 의료 현장에서 오류를 줄이고 최상의 치료를 만드는 간호국의 핵심 역량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성장하는

간호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 바로 교육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료 현장에서 최선의 간호를 펼치기 위해 교육은 필수다. 이에 예수병원 간호국에서는 이제 막 병원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간호사 교육은 물론, 재직 간호사 교육까지 대상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신입직원 교육은 병원 환경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실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낮은 조직과 업무 환경에서 신입직원이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션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을 통해 신입직원은 조기에 역량을 발휘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반을 다지게 된다. 재직 직원 교육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전문 지식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간호 전문성과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밑거름이다. 임상 역량뿐 아니라 리더십, 소통,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개인 성장과 조직 발전을 함께 도모한다. 이 같은 교육은 직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안정적인 인력 유지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치유와 소망이 피어나길

128년 전, 이름 모를 작은 손길들이 모여 이 땅에 치유의 기적을 일구었듯 예수병원 모든 간호사는 그 뜨거운 사랑의 원형을 닮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예수병원 간호국은 ‘환자의 미소’와 ‘간호사의 행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밤낮으로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 간호사’와 ‘교육 전담간호사’ 제도를 더욱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간호사가 웃으며 일할 때 그 행복이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일하고 싶은 일터, 머물고 싶은 예수병원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병동 리모델링과 입원 생활 안내센터 신설로 환자들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평안함을 느끼도록 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흔의 마음’이 살아있는 간호 현장을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인 간호에 따뜻한 영성을 담아 지역사회 환우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치유의 동반자’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예수병원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소망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한다.



방글라데시에 심은

예수님의 사랑

2025년 하반기 단기선교

- 선교기간** 2025. 11. 21.(금) ~ 26.(수)
- 선교지역** 방글라데시
- 활동내용** 코이카 프로젝트
- 고혈압, 당뇨 스크리닝 캠프 참여
병원 의사, 간호사 교육 등



“국경을 넘어 확인한 의료인의 소명”

신경외과

신우람

과장

빡빡한 일정과 혼란스러운 현지 상황으로 고민이 많았지만,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적인 사역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합류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만성질환 스크리닝, 현지 간호진과의 워크숍,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기독 학생들과의 교제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현지 의료진과 학문적으로 교감하며 의료인의 소명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사역과 휴식이 조화를 이룬 이번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을 넘어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연합”

외과

양유성

과장

처음에는 멀고 생소한 방글라데시에 팀원이 모일지 걱정하는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직접 부르셔서 완벽한 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각자의 소명 덕분에 준비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연합과 교제’ 그 자체였으며, 매 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그 곳에서 느낀 은혜가 제가 일하는 예수병원과 이 땅 위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교제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첫 선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

기병동

김주영

간호사

첫 선교였기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과의 교제 속에서 설렘을 느꼈고,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느꼈고, 그분의 뜻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앞으로도 말씀을 가까이하고 방글라데시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친 일상을 치유한 하나님의 위로”

수술실

백하은

간호사

바쁜 병원 업무로 지쳐 있던 저에게 이번 선교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의료 현장을 돌아보며 간호사로서 제 마음가짐을 되돌아보았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어진 큐티와 찬양 나눔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순종하는 삶과 현지 기독 학생들과의 영적 교제는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를 이제 제가 서 있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일상을 선교지처럼”

72병동

방수익

간호사

선교를 꿈꾸며 예수병원에 입사한 1년 차 간호사로서, 배려와 은혜 덕분에 방글라데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현장에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뒤 환경은 이전과 다름없이 바쁘고 정신없지만, 선교지를 통해 변화된 제 마음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과 뜨거웠던 마음을 날마다 붙잡으며, 병원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역자와 함께 나눈 섬김의 기쁨”

원목실

최현식

목사

예수병원의 선교 사역은 언제나 흥미롭고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뭉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나눔과 섬김의 참된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실천한 작은 사랑이 방글라데시 현지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도전과 나눔의 현장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유하고 소망합니다.

PMCI 국제의료협력단

창립 20주년 기념의 밤 & HOME 개관

House of Mission & Education

PMCI 20주년을 맞이하여

글 김마가 이사장

PMCI를 시작한 이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방의 민족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 창립자들의 꿈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정신없이 분주한 병원 생활 가운데에서도 충성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수련회를 만들고 해외에 아웃리치를 나가며 조그만 공간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유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고전 12:7)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연단해 주셨고 성장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홍익한 자를 이기는” 자들로 자랐다. (요일 2:14)

청년이 된 PMCI는 분명히 원수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충성되어 섬길 것이다. 지난 20년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훨씬 기대가 된다. 우리가 마주할 어떤 도전이나 변화보다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때문이다.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숨 쉬는 선교를 이어가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동산의료선교복지회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료선교의 역사는 1899년 대구 제중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립 초기부터 의료를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닌, 한 생명을 품고 섬기는 신앙의 실천과 사랑의 나눔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21년 2대 원장 플레처(Archibald Grey Fletcher) 선교사가 당시 전체 교직원 26명과 함께 기본급 1%를 모아 전도회를 만들어 이를 실천에 옮겼다. 전도회의 설립 정신은 1996년 동산의료선교복지회로 사단법인화되었으며, 동산의료원 전교직원이 기본급의 1%를 기부금으로 모아 회원으로서 선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Q. 동산의료선교복지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를 위해 펼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동산의료선교복지회는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의료선교의 흐름을 오늘날에 맞게 계승하여, 19세기 말부터 외국 선교사님들께 받은 사랑을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복지 연계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와 호혜하며, 국내외 선교사와 기독교 기관에 의료 및 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산의료원 내 예배와 상담 등 영적 돌봄 사역을 통해 치료 공간을 넘어 선교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산의료선교복지회는 동산의료원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병리사, 기사, 행정, 목사 등 각 파트의 구성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의료는 곧 선교’라는 믿음 아래 하나로 연결된,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 문화는 본 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또한 원목실과의 협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료적 전문성에 영적 돌봄을 더한 동산만의 특별한 의료선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 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선교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국내 약 20개 기독교 선교 기관 및 N.G.O 단체, 그리고 저소득 의료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1921년부터 현재까지 854회 국내 의료선교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여성 암 검진 지원, 대학 기독 활동 지원, 병원 교역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선교 사업으로는 방글라데시 팔람폴라병원을 비롯한 해외 기독교 병원과 각국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11개국, 33회 해외 봉사를 진행하였고, 현지 환자들을 동산의료원으로 후송해 치료하는 ‘나눔 의료’와 대지진 같은 재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Q. 동산의료선교복지회에서 설립한 카자흐스탄 알마티동산병원이 걸어온 길이 궁금합니다.

알마티동산병원은 해외 선교 사업 중 하나입니다. 1995년 동산 진료소로 시작해, 1999년 병원으로 승격하여, 현재 의료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직접 파송하여 현지 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의료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교민과 현지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펼친 구호 활동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알마티동산병원은 단기 의료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선교 기반을 세우는 일로, 의료적 역할뿐 아니라, 선교적 베이스캠프로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의 빛과 사랑이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서, 의료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오랜 시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돌봄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힘은 ‘의료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초기 선교사들과 의료인들이 남긴 헌신의 흔적은 의료원의 제도와 문화로 이어졌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어져 온 기도와 섬김이 오늘의 사역을 지탱해 왔습니다. 성과보다 생명을, 효율보다 사랑을 우선하는 선택이 동산의료선교복지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온 원동력입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동산의료선교복지회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각국 현지의 선교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글로벌 의료선교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원 구성원들이 일상의 의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동산의료원의 설립 정신이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살아 움직이는 선교가 되도록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나아간

김태형정신건강의학과 김태형 원장

김태형 원장에게 예수병원은
참 많은 의미를 지닌 곳이다.
뚜렷한 신앙이나 비전을 품지 않은
불완전한 ‘미생’ 상태의 사회 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깊고도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 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차분히, 그리고
단단히 다질 수 있었다.

한여름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만났으며, 무엇보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의국의 도움으로 상담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병원은 제 인생의 뿌리가 형성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로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던 시간을 꼽았다. 당시 복용하던 약이 무척 많았고, 용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부작용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 시골에 거주하셔서 두 달 치를 한 번에 처방받아야만 했다고 한다. 그 많은 약을 수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지어준 기억이 지금도 깊이 남아 있다. 재활의학과 입원 당시 의료진의 따뜻한 돌봄은 보호자로서 큰 위로가 되기도 했다. 구 기독교학연구원 강당과 재활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환우, 간호 학생들과 함께한 심리극 활동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마음의 극장”이라는 이름의 심리극이 진행된 두 시간 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눴던 순간들은 깊은 울림을 안겨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아닌, 인간과 인간으로 마주하는 자세도 갖게 됐습니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추억들도 잊지 못한다. 전공의들과 땀 흘리며 농구했던 기억, 매년 4월 정신건강의 날 행사 후 의국원들과 나눈 칼국수 한 그릇, 점심 식사 후 커피 타임, 매일 걸었던 예수대학교 뒤편 호젓한 오솔길까지. 예수병원에서 보낸 25년 동안 스쳐 간 장면 하나하나 모두 생생히 살아 숨 쉰다. 김태형 원장이 인생의 한여름 같은 시간을 보내며 ‘미생’의 상태가 점차 여름과, 뿌리가 단단해진 곳, 바로 그곳이 예수병원이다.

사랑과 치유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20여 년 전 예수병원 아동치료센터에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도 했다. 당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환경 속에서도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언어·감각통합·사회성 치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낮 병원’ 형태의 모델을 실천에 옮겼다.
아이들과 선교사촌 언덕을 산책하고 지역 대학생들과 사례를 연구하던 그 뜨거웠던 경험은 개인적으로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 이 소중한 자산은 개원 이후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놀이, 언어, 모래놀이, 가족 치료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다. 특히 교육지원청, 학교, 위(Wee)센터, 아동복지 바우처 사업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지키는 단 하나의 철칙은 환자를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다.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쾌한 해결책보다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 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사로서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한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빈 의자에 예수병원이 유기체처럼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말을 건넨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그랬더니 이 말이 나오더군요. “그동안 고마웠어.”
담백하지만, 진심을 담은 한마디. 그 속에 예수병원에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치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길 바라는 소망도 함께 전했다.



김태형 원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예수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임상과장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멘탈코칭학과 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재난 및 트라우마 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 자문 의사
전주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전문가

믿음과 헌신의 여정을 기리며

글 재활의학과 유기배 과장

닥터 쇼와 샤론 쇼 부부는 ‘한 사람의 재활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일한다.’라는 철학으로 예수병원 재활의학과와 문을 여시고, 국내 최초로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받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배출하신 분이시다. 부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1972년에 장애가 있는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 전주 예수병원으로 찾아와 의료선교사로서 12년간 사셨다. 두 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겸손, 사랑,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나는 2013년 예수병원 ‘Dr. Shaw 기념재활센터’ 건립 당시 내한한 두 분의 한국 일정을 수행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되었다.

샤론 쇼 선교사가 췌장암이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일 년 전부터 두 분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상 방문하지 못했다.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며칠 후, 금요일 오전 외래진료를 보던 중 토요일 아침에 출국하여 장례 예식에 참석하는 출장 일정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여정이었지만 병원 직원들과 재활의학과 동문의 애도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닥터 쇼를 직접 뵙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20여 시간을 거쳐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했다.

주일날, 조문을 위해 라터만(Ratterman) 장례식장에 들어서서 닥터 쇼를 마주했다. 그의 야위고 노쇠해진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놀라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닥터 쇼는 우리를 샤론 곁으로 이끌며 “그녀는 정말 놀라운 여성이었다(She was an amazing woman)”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샤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이별의 아쉬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이 먹먹했다. 샤론은 마치

국내 최초의 전문재활센터를 세우며 한국 의료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닥터 쇼(Dr. Shaw)와 샤론 쇼(Sharon Shaw) 부부. 이 땅에 사랑을 심었던 샤론 쇼 선교사가 지난 2025년 11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주님을 사랑했던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그 숭고한 믿음과 유산을 기록합니다.

잠을 자는 듯 평온하게, 그러나 미동이 없이 누워 있었다. 조문 장소에는 사진과 감사패, 졸업장 등 그녀가 걸어온 삶의 발자국이 전시되어 있었다. 가족과 지인들은 그들이 아는 샤론의 삶을 공유하며 샤론의 창의성과 겸손함, 그리고 늘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삶을 회고했다. 두 여동생은 언니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었다고 추억했고, 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걱정 대신 평안을 선택했던 샤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다. 닥터 쇼와 유가족들은 우리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다. 특히 닥터 쇼가 예수병원 직원 예배에서 상영된 샤론의 추모 영상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여 주었으며 그 영상을 통해 그가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음날 장례 예배에 참석했다. 말씀을 전한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10절을 인용하며, 샤론이 생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했음을 전했다. 유족의 요청으로 크리스 탐린의 찬양 ‘Is He Worthy’을 다 함께 불렀다. 샤론의 관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이 된 닥터 쇼와 연약한 두 자녀, 로라와 마이클은 슬픔을 불러일으켰지만, 온 세상의 구원자이자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이 가족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 남은 날은 매우 안전하고 가치가 있으며,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우리 팀은 추모사를 통해 두 분의 헌신으로 시작된 예수병원 재활의학과와 발전 과정을 전하며, 현재도 그 철학과 유산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닥터 쇼와 같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130여 년 전에 세워진 우리 예수병원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우리는 <Goodness

of God>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였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가족들의 모습에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 장지로 출발하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닥터 쇼는 샤론의 손을 잡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 마이클은 “엄마~”라고 크게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들의 가족이 되어 곁을 지켰고, 함께 예배하며 슬픔을 나누었다. 예배를 마친 뒤 닥터 쇼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Open House: 정해진 시간 동안 지인이 자유롭게 들러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미국 문화) 이웃 주민들은 샤론의 생전에 그녀의 뜻을 따라 함께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교제했다. 집안 곳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액자들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병풍, 한문패, 감사패, 재직 시 명함패, 도자기, 자개 서랍장 등 한국에서의 시간을 담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작업치료사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말을 사랑했던 샤론의 흔적이 집안 분위기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포근함을 더했다. 이웃들은 닥터 쇼와 샤론은 좋은 이웃이었고, 앞으로도 그들이 닥터 쇼를 잘 돌볼 것이라며 우리의 걱정 어린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다. 2027년 건립될



권역재활센터에 대해 설명하며 닥터 쇼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닥터 쇼는 우리의 방문과 한국에 있는 동문의 기도,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마련해 준 추모 예배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닥터 쇼는 우리 재활의학과가 앞으로도 한 팀이 되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병원이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부탁의 말씀을 전하셨다.

우리 팀은 이 여정이 많은 이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의 유산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늘 평온하시길 빌겠습니다

26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마주하니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영광이 밀려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러분을 다시 뵙는 순간, 그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깊은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축복을 심어주고 계신다는 소식은 제게 가장 큰 복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Sharon에게 예수병원(Jesus Hospital)은 삶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Sharon은 늘 “내가 주님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뜻을 기려 마련해주신 채플 예배와 영상은 긴 시간을 건너와 저희 가족에게 큰 치유를 선물했습니다. Sharon을 잃은 슬픔의 시기를 보내는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인터뷰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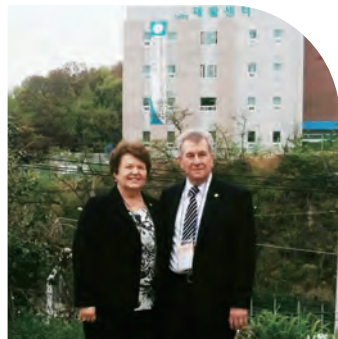
글 Dr. Shaw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병원을 찾는 이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치유받는 것은, 창조주이자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회복을 넘어 마음이 치유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 그것이 바로 예수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복음은 병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임을 믿으며 여전히 진리를 수호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Sharon은 비록 곁을 떠났지만, 이제 아픔과 눈물이 없는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병원이 걸어갈 길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는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는 곳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먼 훗날, 다시 여러분을 만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Dr. Shaw 드림



예수병원 작은 교회 리뉴얼 오픈 (2025. 12. 1.)

우리의 선언

예수병원은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일하고, 일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문화**를 창조하며 확장시켜 갑니다.
예수병원은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길러내며 세계로 파송합니다.
예수병원은 **의료의 탁월함**과 **선교적 정체성**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갑니다.



예수병원은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예수병원에서 **교육받은 모든 의료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의료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병원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병원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선교허브병원**입니다.

“가슴 쥐어짜는 통증 있다면”
겨울철 ‘심근경색’ 주의보

순환기내과 박종필 과장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인데요, 평소 증상이 없던 사람에게도 발병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과 함께 대표적인 응급질환으로 꼽히는 심근경색. 예수병원 순환기내과 박종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시다.



11월 26일(수) 방송
KBS NEWS



‘비만 치료제’는 다이어트용? 오해와 진실

가정의학과 이종민 과장

해가 바뀌면 ‘다이어트’를 다짐하는 분들, 많으시죠? 예나 지금이 나 약을 통해 살을 손쉽게 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보니, 해마다 이맘때쯤에는 비만치료제가 유행처럼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비만치료제의 궁금증 예수병원 가정의학과 이종민 과장과 함께 풀어봅시다.



1월 15일(목) 방송
KBS NEWS



1	11.10.	전북일보	전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 ‘치유의 손길 생명을 잇다’ 예수병원 편
2	11.11.	브레이크뉴스	예수병원 ‘결핵·COPD 1등급’ 획득
3	11.25.	전북CBS	개원 127주년 기념 영상전 개최
4	11.27.	국민일보	제53차 전북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 세미나 성료
5	12.01.	데일리굿뉴스	예수병원, 무주군 의료 소외 지역 어르신 대상 ‘건강 동행 의료봉사’ 실시
6	12.02.	전북CBS	예수병원, 유럽풍 성탄마을 콘셉트 점등식 개최
7	12.05.	전북도민일보	하루 평균 80명, 1년이면 거의 3만 명이 생명을 잃는 질환 폐렴... 호흡기내과 김성민 과장
8	12.05.	NSP통신	선교사 묘역지 ‘작은 교회’ 리뉴얼 오픈식
9	12.05.	국제뉴스	강종대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장, 전북 인물대상 ‘의료사회복지행정 대상’ 수상
10	12.13.	연합신문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내년 착공... 입원 병동 150병상 규모
11	12.15.	의학신문	예수병원-KODA, 연명의료·장기기증 ‘원스톱’ 시스템 모델 구축
12	12.16.	국민일보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 펼쳐
13	12.23.	한국기독교공보	마티 잉골드의 ‘의료선교 일기’ 개정판 출간
14	12.30.	전북도민일보	재활센터, 소아 환우와 가족 초청 행사 성료
15	12.31.	기독교신문	예수병원, ‘2025 마음의 온도, 100℃’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

PMC NEWS는 병원을 더욱 신뢰하고 의료진의 전문성을 홍보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1

전북일보

전주 MBC 특집 다큐멘터리 ‘치유의 손길 생명을 잇다’ 예수병원 편



전주예수병원이 걸어온 127년의 역사를 통해 한국 의료선교의 뿌리와 공공의료의 현재를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13일 오후 6시에 전주 MBC에서 방영한다. 전주 MBC가 기획·제작한 다큐멘터리 ‘치유의 손길 생명을 잇다’는 예수병원의 127년 여정을 5개의 챕터로 구성해 풀어낸다.



2

브레이크뉴스

예수병원 '결핵·COPD 1등급' 획득



예수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 점수 92.7점을 획득해 전체 의료기관 평균 점수 70.2점과 상급종합병원 평균 점수 90.3점을 상회했다. 7차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결핵 신환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17,186개 소를 대상으로 ▲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 ▲ 통상 감수성 검사 실시율 등 4개의 평가지표와 ▲ 치료 성공률 모니터링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

전북CBS

개원 127주년 기념 영상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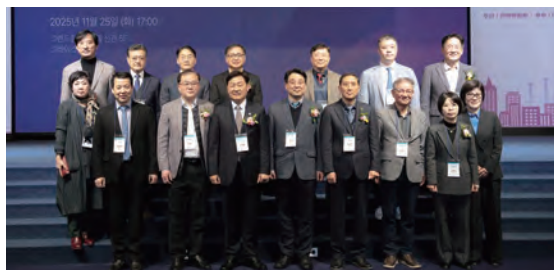


예수병원이 개원 127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 영상전을 개최한다. 12월 28일까지 본관 2층 로비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함께했던 예수병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7년간 지역민과 함께 걸어온 병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전북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와 의료선교의 역사적 뿌리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4

국민일보

제53차 전북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 세미나 성료



전북 지역 병원들이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다시 내디뎠다. 전북병원회(회장 신충식)는 2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53차 전북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지역 의료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5

데일리굿뉴스

예수병원, 무주군 의료 소외 지역 어르신 대상 '건강 동행 의료봉사' 실시



예수병원 국내 선교부는 무주군 무풍면 십승지문화센터에서 의료혜택이 취약한 도서·산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동행 함께 전북, 무주군 착한 한 끼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예수병원, 전주풍남로타리클럽,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예수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약 20명의 의료진 및 직원이 참여했으며, 진료, 체외충격파 치료, 테이핑, 심전도 검사, X-ray 촬영, 수액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6

전북CBS

예수병원, 유럽풍 성탄마을 콘셉트 점등식 개최



예수병원은 정문 광장에서 '2025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말 분위기를 조성했다. 올해 점등식은 “유럽의 작은 크리스마스 마을(Christmas Village)”을 주제로 기획됐다. 병원 측은 알프스 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을 걷는 듯한 감성적인 풍경을 재현해 지역 시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정취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7 전북도민일보

하루 평균 80명, 1년이면 거의 3만 명이 생명을 잃는 질환 폐렴_호흡기내과 김성민 과장

폐렴은 폐실질에 발생한 염증을 말한다.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해 발생하며, 임상적으로 발열, 오한, 기침, 객담, 빈호흡, 폐 잡음 등의 증상 및 징후와 함께 방사선 검사상 이상이나 음영 관찰 시 의심할 수 있다. 폐렴은 대부분 세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러스 감염, 진균, 기생충 및 다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경우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및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폐렴 치료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전체적 경과 및 예후에 좋으니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

8 NSP통신

선교사 묘역지 '작은 교회' 리뉴얼 오픈식



이번 리뉴얼은 초창기 예수병원 설립에 헌신한 선교사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리고 병원 구성원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도·명상·휴식의 영적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교회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를 전면 개선했으며 자연 채광을 활용한 고요한 예배 공간에서 방문객이 마음을 내려놓고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9 국제뉴스

강종대 예수병원 사회사업과장, 전북 인물대상 '의료사회복지행정 대상' 수상



강종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사회사업과장이 '제11회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에서 의료사회복지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복지TV 전북방송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와 국제뉴스 전북본부가 공동 주관했다. 강과장은 36년간 예수병원 사회사업 현장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헌신해 왔다.

10 연합뉴스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내년 착공... 입원 병동 150병상 규모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은 전주시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지하 3층·지상 7층, 연면적 1만 7천여㎡ 규모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150병상의 입원 병동, 20병상의 낮 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 기능을 갖춘다. 총사업비는 764억 원으로 내년 초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다.

11

의학신문

예수병원-KODA, 연명의료·장기기증 ‘원스톱’ 시스템 모델 구축



예수병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공동 주최한 ‘2025 충청 호남 지역 기증 활성화 워크숍’을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장기기증 제도를 연계한 ‘상호 보완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과정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동시에 안내·처리하는 원스톱 모델을 주요 성과로 도출했다.

12

국민일보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회,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 펼쳐



주니어 임상과장회는 전주 완산구 낙수정1길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 900장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에는 예수병원 주니어 임상과장 5명과 전공의 1명, 직원 자녀 1명 등 병원 구성원 7명이 참여했으며, 김은영 외과과장이 소속된 전주여울교회 청년 7명과 전주온누리교회 청년 30여 명도 함께하며 교회와 병원이 연합한 나눔의 현장을 만들었다.

14

전북도민일보

재활센터, 소아 환우와 가족 초청 행사 성료



재활센터는 소아 환우와 가족들을 초청해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Re Hope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 치료로 지친 소아 환우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즐거운 추억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느루걸음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의 감동적인 연주로 시작해 ‘리슨 서커스 저글링쇼’와 ‘박태영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13

한국기독교보

마티 잉골드의 ‘의료선교 일기’ 개정판 출간



‘잉골드 다이어리’는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1897년부터 약 28년간 전주에서 사역하며 직접 기록한 일기로, 공식 선교 보고서나 기존 역사서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당시 조선의 의료·문화·여성·신앙의 현실을 기록으로 담아낸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단순 회고록이 아닌, 외국인 선교사의 삶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식 기록문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잉골드 다이어리’는 예수병원 설립 120주년을 기념해 처음 공개됐지만, 초판 이후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적 의미를 현재적 질문으로 재해석해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15

기독교신문

예수병원, ‘2025 마음의 온도, 100℃’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



12월 31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원 및 환우 간에 서로를 추천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참여형 행사인 「2025 마음의 온도, 100℃」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말이나 메시지만 전하는 캠페인이 아닌, 병원 내에 실제 우체통을 설치해 직원들이 직접 손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엽서에 적어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더욱 깊은 공감과 현실적인 감동을 전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후원 계좌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국민은행 751901-01-465000
신협 131-020-826222
전북은행 510-23-0317364
농협 658-01-031404

후원 방법에 관해 예수병원 발전후원회(063-230-886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 발전기금

1억 원 이상

예수병원 선교회원회

5천만 원 이상

KB전주종합금융센터

1천만 원 이상

강정애
김귀완
민경춘
박성광
신충식
예수병원신협
이재훈

5백만 원 이상

고영환
김호성
김상섭
신일교회
전주노회
황지옥

1백만 원 이상

강명선
글로벌하담기독교학교
김재조
김창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서노회
덕치교회
박민철
박상호
박성규
박성임
박형식
양명석
예본교회
이영재
전북노회
전주장로합창단
정영철

전북권역재활병원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기금

1천만 원 이상

서기항
이광재, 최슬기
이나은
주식회사홍약품

5백만 원 이상

김금석
김은실
배철
윤용순
포이스트㈜

1백만 원 이상

김동현, 서수진
김민우
김소엘
박상호
서유희
손우림, 손하루
예수병원 여의사회
예수병원 영상학과
이광영
이상준
장훈
정읍중앙교회
조영민
창평교회
채수완

* 2025. 09. ~ 2026. 01. 기준 (가나다 순)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감염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검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목, 금	화
	이재성	성인병, 감염진, 건강검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수
	이종민	만성질환, 성인병, 검진초음파	-	화, 수, 목, 금
	서의울	성인병, 건강검진, 검진초음파	-	금
	최미림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체장질환)	월~금	월~금
	김호철	건강검진(치과)	월~금	월~금
	오종은	건강검진(부인과)	월~금	월~금
	이정재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체장질환)	월~금	월~금
김수민	건강검진(소화기내시경)	월~금	월~금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중후군, 내분비질환	월, 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중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목, 금	수, 목, 금
류마티스 내과 230-1300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웅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수, 금	화, 수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월, 수	월, 목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금	금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화, 목	월, 수,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금	화, 수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수, 금	월, 목
	이성욱	간, 담도, 위장관, 체장질환	화	수, 목
	박호경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화
노건주	간, 위장관, 담도, 체장질환	-	금	
내과	류재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목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	-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월, 수	월, 목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실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국도자절제술	수, 금	수, 금
	문해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심기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화	-
	선인오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아영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금	화, 목, 금
	오주환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정승희	심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목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내과	혈액종양 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화, 수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패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화, 금	수
	마취 통증의학과 230-1580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한동수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오창환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백승민		전신마취, 부위마취, 복강경마취, 정형외과마취	월~금	월~금	
방사선 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김정수	유방암, 자궁암	화, 수, 목	화,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 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금	화, 수,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자선장, 내분비질환	수, 목	월, 화, 목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월, 금	월, 수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	
	박상호	신장, 성장 질환	화, 목	월, 화, 금	
	곽현미	소아 호흡기	월, 금	월, 수, 금	
	황동진	소아감염질환	화, 수, 목	수, 목, 금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영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이진호	소아응급	평일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강동구	안면거상, 뺨따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화, 목	
신경외과 230-1420	허승근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화, 수, 금	월, 수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화, 목	화, 목	
안과 230-1450	송영진	안성형, 일반안과	월~금	월, 수, 목, 금	
	안성현	망막, 백내장, 포도막염, 미숙아 망막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여성 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월, 수	
	김경아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모,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화,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대표전화 1899-1843, 230-8114,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일정은 2026년 2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수, 목 *장애인화 산부인과 진료	화, 목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이미숙	흉부	월~금	월~금	
	김윤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정수연	흉부·심혈관계	월~금	월~금	
	노경희	유방	월~금	월~금	
	박범균	인터벤션	월~금	월~금	
	최진술	복부, 비뇨생식	월~금	월~금	
	배현수	인터벤션	월~금	월~금	
외과	간담췌외과 230-1400	김우영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이유니	간, 담도, 췌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화, 수
		김은영	외과응급	금	월, 목
	대장 항문외과 230-1400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용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	-
		문재영	소화기질환, 일반외과	수, 목	금
	상부 위장관외과 230-1400	이종영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김철승	유방·갑상선	화, 금	화
	유방· 갑상선외과 230-1400	김예정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월, 목	목
최은혜		유방·갑상선, 일반외과	수	월, 수, 금	
혈관이식 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 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 혈관중재시술, 혈관 이식, 유방·갑상선	월, 수, 금	화	
	김하람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유방·갑상선	-	목, 금	
소아외과	김예정	소아외과	월, 목	목	
흉부외과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수, 금	월	
국제진료소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	-	
응급의학과 230-8280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박홍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심동오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유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민수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장해운	소아응급	월~일	월~일	
	한민정	소아응급	월~일	월~일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월, 금	화, 목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화, 수, 목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 전	오 후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월	월
	윤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화, 수, 금	월, 화, 수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화, 수, 목, 금	월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화, 목, 금	화, 수, 목, 금
	유기배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월, 화, 수, 금	화, 목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수, 목	화, 수, 목, 금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화, 목	월, 수, 목, 금
	김태환	중추신경계 재활, 근전도, 연하재활, 근골격계재활, 소아재활	월, 수, 목, 금	월, 화, 금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최말래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화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월, 수, 목
	한명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박경환	조현병, 기분장애(우울&조울), 화병, 불안장애(공황장애·사회공포증), 신체화상해, 불면증, 정신치료	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정형외과 230-1430	정의섭	고관절, 골반	월, 수	-
	신총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염, 인공관절)	월, 목	-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김영찬	슬관절 및 족부족관절	수, 금	월, 수, 금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역학검사	월~금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금	월~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경검, 검사정보화	월~금	월~금
치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화, 목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월, 화, 수	월~금
행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문은하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행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You Make Me Warm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 -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